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3. 11. 21.(화) 11:00,
(지면) 2023. 11. 22.(수) 조간

배포 2023. 11. 21.(화) 06:00

수산계 직업계고의 염원, 3천톤급 공동실습선 만든다

- 배 안에 국내 최초 해양인명구조훈련장(실습 풀장) 구비, 2026년부터 승선 실습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와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)는 11월 22일(수), 중앙해양중공업(주)(전남 영암군 소재)에서 전국 6개 수산계고교*에서 사용할 어선 공동실습선 착공식**을 개최한다.

* (인천) 인천해양과학고, (충남) 충남해양과학고, (전남) 완도수산고, (경북) 한국해양 마이스터고, 울릉고, (경남) 경남해양과학고

** 선체에 사용되는 강판을 절단(steel cutting)하는 것으로 선박 건조의 첫 시작을 알림

이번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및 교육부, 5개 교육청 및 수산계고, 목포지방 해양수산청,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관계자들이 참석한다.

2025년 건조를 목표로 설계되는 공동실습선은 학생, 승무원 등 110명이 동시에 승선할 수 있으며, 21일 연속 운항이 가능해 수산계고 학생들이 8000마일 원양항해(하와이 왕복거리)도 할 수 있을 예정이다. 또한, 어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배 안에 국내 최초의 해양인명구조 실습풀장을 비롯하여 최신의 선박조종 및 기관실 모의실험 장치(시뮬레이터), 어군탐지 연습을 위한 해양드론교육장 등의 교육시설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.

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계획



- (주요제원) 3,090GT/ 전장89.5m/ 폭15m
- (추진엔진)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
- (승선인원) 승무원, 교원, 실습생 등 110명
- (총사업비/기간) 420억원 / '22~'25년
- (건조운영) 한국해양수산연수원
- (참여교육청) 인천, 충남, 전남, 경북, 경남

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시도교육청은 2026년부터 수산계고*에서 학교 교육 과정에 따라 공동실습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교육과정, 연중 운항 일정 등을 마련하고 있다. 아울러, 선장, 기관장 등 전문성 있는 승무원을 확보하여 양질의 어업 관련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어선 공동실습선 건조를 통해 수산계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수산계고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학업에 임하여 미래 우수한 수산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“수산전문인재를 꿈꾸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최신 실습선에서 원하는 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앞으로도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운영과 취업 지원을 위해 해수부와 적극 협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	책임자	과 장	정준호 (044-200-5460)
		담당자	사무관	김혜은 (044-200-5463)
	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진우 (044-203-6397)
		담당자	연구관	이재선 (044-203-6400)
협조	한국해양수산연수원	책임자	신조사업단장	박태선 (051-620-5820)
		담당자	차장	임성주 (051-620-5560)



해양인명구조훈련장(해양안전훈련장)



해양드론교육장



선박조종 모의실험장치(시뮬레이터)



기관실 모의실험장치(시뮬레이터)